

# Team 10의 CIAM 탈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歷史的 敎訓

李熙奉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 1. 序論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이다. 역사가로서의 필자는 20세기 건축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40여년 전에 일어난, '현대건축 국제 의회' 즉 CIAM (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으로 부터 일련의 건축가들이 탈퇴하여 Team 10을 결성한 사건을 설정한다.<sup>1)</sup> 과거의 사실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다시 발굴 해석하여 현대 건축의 방향을 탐구하고자 함이다.<sup>2)</sup> 그러자면, 역사적 사실로서 그 탈퇴의 과정을 엄밀히 복원하고 나서, 그 원인을 해석하고 이후에 건축계에 미친 영향과 한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건축인으로서 왜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어야 하는가 하는 역사적 교훈을 탐구하기로 한다.

## 2. 歷史的 事實

### 2-1. CIAM의 展開와 Team 10의 發端

CIAM을 빼고 '20세기의 현대 건축' (Modern Architecture)<sup>3)</sup>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선진 각국의 신념에 찬 건축가들이 1928년 스위스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속적으로 30여년간 모여 그들이 신봉하던 새로운 현대 건축을, 작품으로 발표하고 이념을 토의하고 결과를 출판하여 세상에 퍼뜨린 커다란 사건은 지금 이후에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북미, 아프리카는 물론 이웃 아시아의 인도, 일본의 건축가도 참여한 세계적 사건이었다. 단, 우리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러한 주류의 진동이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고, 해방후 근래까지의 대학의 건축 역사 교육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Stuttgart의 Weissenhof 주거 전시가 있는 1년 후인 1928년 6월 26일 부터 28일 까지 스위스의 Vaudois마을의 Sarraz성에서 당대의 내노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였다.<sup>4)</sup> 그중 건축가

1) 필자는 "한국건축 역사연구의 비판과 방향모색" 「건축 역사연구」 1집, 1992.6 245-46쪽 '실천이론으로서의 역사방법' 소절에 역사연구 주제 선택의 이념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이는 E.H. Carr의 *What is History?* (1961, 35)에서 역사는 과거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가를 매개로 한 과거와 현재와의 왕복 운동이라는 설에 따른다.

3) 'Modern Architecture'를 '근대 건축'으로 번역함은 적절치 못하다. 영어에서 Modern은 언제나 '지금'을 포함하므로 우리말로 과거인 '근대'가 아니라, '현대'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단, '언제 시대의' '현대'가 꼭 따라다녀야 하겠지만.

4) Ulrich Conrads, *Programs and Manifestos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p.109 및, Martin Steinmann,

Le Corbusier와 평론가 Sigfried Giedion이 기초하여 제안한 “현대 건축이 가야 할 길”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소위 CIAM- ‘현대 건축 국제 의회’가 탄생되고 이 선언은 CIAM 1, La Sarraz 선언으로 알려진다.

첫 모임에서 모두 유럽의 건축가로 구성된 24명이 서명하였으나 그 후 회를 거듭할수록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확대되어 명실하게 당대의 현대 건축을 끌여가는 집단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후 2차 세계대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 1-3년의 간격으로 10회까지의 의회를 개최하고 이념을 토의하고 작품을 발표하고 종종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정기 의회 사이에 여러 차례 분과 소모임이 있었다.) 모임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차수	년도	장소	주제
1	1928	La Sarraz	창립
2	1929	Frankfurt	저소득층 주거
3	1930	Brussels	단지계획의 합리적 방법
4	1933	Athens	아테네 현장
5	1937	Paris	현장 수정
		2차대전	
6	1947	Bridgwater	개별 발표
7	1949	Bergamo	정주환경>코르뷔지어
8	1951 1952	Hoddesdon Sigtuna	都心 9차회의 주제
9	1953	Aix-en-Provence	인간 정주환경
10	1956	Dubrovnik	
?	1959	Otterloo	Team 10 별도모임

출판된 결과물 중 4회 Athens와 5회 Paris의 결과물을 묶어 Jose Louis Sert가 편찬한 *Can Our Cities Survive?*는 지금도 건축과 도시계에 영향을 주는 고전으로 남아 있고, 6회 Bridgwater 모임의 논의와 작품을 Giedion이

“Political Standpoints in CIAM 1928-1933”. *Architectural Association Quarterly*. 72. Autumn. vol.4.no.4. p.50.

5) Oscar Newman, *New Frontiers in Architecture, CIAM '59 in Otterloo*. 1961. pp.11-13 및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 Press, pp.696-703

묶어 *A Decad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로 펴내었다.

그후 1959년, 더 이상 기성 CIAM에 동조하지 않던 젊은 집단이 따로 네델란드의 Otterloo에 모여 이념 논의와 작품 발표 비평을 하고 이 과정을 Bakema의 주문에 따라 Oscar Newman이 *New Frontiers in Architecture* 라는 책으로 기록 편찬하였다.

그러면 CIAM이 추구하였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창기의 1회 La Sarraz 선언으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현재의 건축 상황이 과거 상황과는 확연히 달랐으므로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선언의 서문에서, 사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인간생활의 진화 발전을 위해서 과거 사회의 작업 방법을 거부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건축을 만들고자 하고, 기계문명에 수반된 경제 질서와 사회생활이 건축 현상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6)</sup>

그들의 이념을 대변하는 개념 두 가지 중 하나는 ‘경제적 효율’이다. 합리화 규격화를 통하여 숙련 노동을 줄이는 최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설 산업이 현대건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능적 질서’이다. 과거 무질서하게 자생한 도시 미학을 거부하고 기능을 조직하여 도시를 이루자는 것이다. 기능은 주거, 생산, 휴식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에서 6,70년대 가장 우선시 되었고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경제 효율의 ‘개발 우선의 이념’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더 나아가 CIAM은 그후 1933년 4회 의회에서 ‘기능적 도시’를 주제로 모여 유명한, 즉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되는 Athens 현장을 채택한다. 도시를 4개의 기능, 즉 주거, 업무, 오락(또는 휴양)과 이를 연결하는 교통으로 분리하여 과거의 무질서에서부터 기능적 질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 주장이 건축적으로 나타난 바를 보려면 코르뷔지에의 300만 빛나는 미래도시의 제안을 보면 되고, 실제 건설된 도시로 인도의

6) Conrads, 윗글. 109 쪽

산다갈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신수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6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개발되어온 한국의 신도시들 또한 이 연장선에 있을 따름이다.

2차대전 공백 후 점차 의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젊은 집단들이 딱딱한 기능과 교조적 질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2차대전 후 첫 의회인 1947년 영국의 MARS Group이 주도한 Bridgwater 모임에서 젊은 집단의 목소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Mark Thomas는 그 모임의 보고서인 *A Decad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에서 “30년 전통의 CIAM이 갖고 있던 정신을 해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들이 다시 모였음”을 평가하고,<sup>7)</sup> Giedion은 서문에서 CIAM을 결코 해체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넓게 개방하는 것이 - 특히 젊은 세대에게 - 필요하다고 보았다.<sup>8)</sup>

그후 7, 8, 9, 10차 의회를 통하여 젊은 집단은 처음에는 각 소분과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가 점차 본회의와는 별도로 수차 모임을 갖고, 특히 10차 의회 1956년 Dubrovnik 이후, 더이상 CIAM과 같은 지붕 아래서 살 수 없다고 보고 1959년 Otterlo에 모여 별도로 작품 발표와 토론을하고 주장을 정리하여 이후 'Team 10'이라 칭하게 된다.

## 2-2. Team 10의 이탈 內容

CIAM 초기에 거장들이 그토록 열심히 주장했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기능분리를 통하여 명확한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숨막히는 교조주의로 비쳐졌다. Giedion은 CIAM 6 (1947년)의회의 기록 보고서에서, “젊은 화란의 건축가 A. van Eyck가 CIAM에 결정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쓰고 있다--즉, “CIAM이 인간 환경의 ‘개선’을 향해,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인간 진보의 개념을 지켜나갈 것인지? 또는 이 개념을 비판하면

서, CIAM의 활동과 반대 방향으로 배경을 전환하는 데에 도와줄 용의가 있는지?”

이어 그 보고서는 Van Eyck가 다소 격렬한 어조로 CIAM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옮겨 실고 있다.<sup>9)</sup>

“상상과 상식간의 오래된 투쟁은 비극적으로 상식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CIAM은 상식의 압제가 끝무렵에 도달했다는 것을 안다. . .

CIAM은 낡아빠진 가치를 대폭 개혁할 것을 거부하고 대신 상식의 세탁소에서 낡은 가치에다 새 옷을 입혀 주려한다. . . 그러므로 CIAM이 이성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해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상상’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최대공약수로 존재하고, 동시에 정신적 변환을 가져올 수 있는 따라서 의미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CIAM은 인간환경의 개선을 향하여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진보의 개념을 선도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개념을 바꾸려고 할 것인가?”

영국의 젊은 건축가 집단 MARS는 1951년 8차 CIAM 의회의 초대장에서 도시의 4가지 기능이 부적합함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서 ‘공동체 의식’ (sense of community)을 주장한다.<sup>10)</sup>

“6차 의회에서 도시계획의 4 요소가 고려되었다. 거주, 일, 몸과 마음의 배양, 교통. 그러나 사실상,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 모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공동체에게 하는 또다른 분명한 요소가 있다. 진짜 유기체 어느 것에도 필수적인, 우리가 핵심(core)이라고 부르는, 심장과 핵(nucleus)이 있다. 인간 공동체는 유기체인데, 자기의식이 있는 유기체이다. 서로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알고 있음이 ‘공동체 의식’이며, 다른 단위, 다른 강도로 표현된다. 예를 들자면 최저 단위는 가족일 것이고, 마을 또는 주거 집합, 또 도시구역, 도시 전체, 대도시, 복합도시, 각단위에 그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물적환경이 요청된다. 공동체의 물적 심장은 핵

7) Mark Thomas, "Report of CIAM 6, Bridgwater 1947", Giedion, *A Decade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p.15

8) Giedion, 원문. 7쪽

9) Giedion, 앞글 43쪽.

10) Oscar Newman (ed) *New Frontiers in Architecture*, p 12.

또는 핵심이다.”

그러면 아테네 헌장 이후 지속되어온 유명한 4가지 기능, 즉 '거주, 일, 휴양, 교통'에 무슨 문제가 있어 어떻게 반기를 들었는지 살펴보자. 1953, Aix-en-Provence에서 열린 CIAM 9에서 Smithson은 “아테네 헌장에서 개발된 기능 위계로 된 도시는 그속에서 인간이 생명력 있게 결합하는 곳을 만드는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새로이 인간 교체의 위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도시’ ‘소도시’ ‘마을’ ‘집’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단지 집단의 숫자적인 모임의 크기를 뛰어넘는 상징”이라고 말한다. 11)

또 Theo Crosby는 거주지는 단순히 은신처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체임을 말하며, 사회적 집합적 생활이 개인과 가족에 결합하여 나타나야 하고, 인간의 공간적, 생리적인 물론 영적, 감동적인 욕구까지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2)

젊은 세대들은 13) 기존 선배들이 해온 방식으로 도시를 4가지 기능으로 분리하여 지역지구로 나누어 배치하는(zoning),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답답할 것이라고 느낀 듯하다. 이들의 주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은 “살맛나는 도시, 만남의 공동체, 독자 개성의 추구, 주체성, 소속감을 심어 줌” 등등이다.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조형적 조건들을 무시한 건축이나 도시계획 제안은 인간에게 주체성을 심어 주지 못하고 인간의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주체성은 주거 자체에서 나타나고, 주거 단위, 공동체 단위, 마을 단위, 지역단위등 모든 단계에서 끌고루 나타난다.

인간은 자기의 화로 앞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바로 느끼지만 도시 안에서는 못 느낀다. ‘소속감’은 기본적인 감정욕구이다. - 그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질서이다. ‘소속감’ 즉 주체성은 이웃사촌 의식을 풍부하게 해준다. 슬럼의 좁고 짧은 길은 넓다란 재개발길이 종종 실패한데 반해 오히려 성공적이다.” 14)

CIAM 9 의회가 끝난 후, 1954년 1월 네델란드의 Doorn에서 그 결과를 검토 연구하는 소모임을 갖고, Athens 헌장에서의 분석적 방법이 왜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부적합 한지를 설정한다.

“아테네의 4기능의 방법이 도시의 기계적인 무질서를 분명히 하는데는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파괴된 도시를 재건설할 때에는 부적절함이 증명되었다. 그 속에서 살 만한 도시를 창조하는 데는 이런 종류의 분석적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5)

### 2-3. 舊體制 해체와 新體制 성립 과정

1953년 7월 Aix-en-Provence의 9차 의회에서 신세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1956년 Dubrovnik의 10차 의회에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 되었다.

처음에 CIAM 창립 회원들은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공식기구 안에 담아두기를 원했다. 1957년 4월 Sert, Gropius, Giedion, Tyrwhitt 등이 반란 주장적인 Bakema와 논의하여, 공식 의회 대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센터’를 제안한다. 57년 5월 제안이 구체화되면서 Team 10의 의견인 ‘군집합, 이동성, 변화와 성장, 건축과 계획’등의 연구 주제가 채택되었다. 57년 6월말, Roth는 “CIAM을 재구성할 것이냐 와해시킬 것이냐?”의 주제로 모임의 초청장을 보내고, 신세대 Howell, Lasdun, Smithson 부부, Voelcker가 공동 편지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CIAM과 같은 형태를 공식적으로 재구성하여 창조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분산하는 결과

11) A & P Smithson, "The Background to CIAM 10", *Architectural Design* 5509. p.286

12) Theo Crosby, "The Charter of Habitat". *Architectural Design* 5509. p.286. 이 글은 CIAM 9의 “주거지 헌장”의 초안에 기초하여 MARS 집단이 CIAM 10에 제출한 것임.

13) 기존 CIAM 창립 회원들은 그들을 “젊은 세대”로 지칭하여, 이념의 논쟁이 아닌 신세대의 반발로 보려 한다.

14) Oscar Newman, 앞 글, 14쪽

15) A&P Smithson, *Architectural Design* 5509. p.286

를 가져온다.”<sup>16)</sup>

57년 6월, CIAM을 새로 개편할 것인가 여부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9월 La Sarraz에서 소집되었다. 새로운 기구의 형식이 주 의제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양측의 갈등만 드러나게 된다.

“회의의 끝에 구 CIAM의 프로그램과 신 Team 10의 목적이 상충되자, 새 기구는 부조화만 노출시키고 말았다. . . 57년 9월 현재 CIAM의 남은 것은 논란의 장이 되어 버렸고, 더 이상 현대 건축을 선전하는 장이 되지는 않았다. 4년 동안 무능을 감추고 CIAM은 스스로 멸망했다.”<sup>17)</sup>

다음 선언이 준비, 유포되었다. “1) [앞으로의] CIAM의 목적은 ‘사회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관계’를 연구하고 실제 사용하는 결론을 그리는 것이다. 2) 그 작업 방법은 실제 작품, 실질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을 표현하여 비교하는 데에 바탕을 둘 것이다. 3) CIAM은 지역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구성될 것이다.”<sup>18)</sup>

그리하여 이 선언의 결과로 기존 CIAM 위원회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La Sarraz 모임후 몇 개월 동안 Brussel, Paris 등지에서 세 번 모여, 다음 네델란드 Otterlo의 모임을 정하고 준비를 한다.

1959년 9월 드디어 50여명의 건축가들이 ‘사회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관계를 연구하는 모임’의 기치 아래 Otterlo의 Kröller-Müller 박물관에 모여 작품을 걸고 발표회와 비평을 하고 이념 토의를 하게 된다.

Team 10 구성원인 John Voelcker는 CIAM 해체와 Team 10 탄생 과정을 잘 요약하였다. “CIAM은 기구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다.” “CIAM은 드디어 죽었다.” “Team 10은 공식 기구 없이 유동적으로 회원이 되고 필요시에만

프로그램을 갖기로 하였다.”<sup>19)</sup> 30년 전통의 CIAM은 이 집회후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고 Team 10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역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 3. 解析

#### 3-1. 中心 爭點: 건축 形態와 人間의 삶 사이

Team 10은 처음에 CIAM 선배들의 기계적, 기능적, 질서에 대한 반대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마침내 Team 10의 결별을 가져오는 중심 쟁점을 그들의 주장을 통하여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인간의 삶’의 문제로 요약된다. 정말로 인간의 삶을 잘 담을수 있는 형태를 만들 것을 다음과 같이 주창한다. <sup>20)</sup>

“우리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인 건축가, 도시계획가로서 우리의 체험을 조형적인 표현으로 변환하는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시급하다.”

CIAM 10의 작품 발표회시 토론을 통하여 기존의 미학을 ‘폐쇄미학’이라하며 비판하고 새로운 ‘개방미학’을 제안한다.<sup>21)</sup> 폐쇄미학은, 프로그램으로 건물 각부를 정의하여 자기 완결적인 형태체계로 설계되며 의심, 불확정, 부정확은 여기서 배제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폐쇄미학에서, 건축가는 단지 형태를 정의하기위해 임의로 선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줄 뿐이며, 건물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자체 선언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Team 10이 추구하는 개방미학은 확실한 것과 의심나는 것과 왕복운동이라 선언하고, 건물이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활동의 우발성을 보장하고 ‘일의 벌어짐’을 추구하는 잠재적 움직임이

16) John Voelcker, "What Happened to CIAM?" *Architectural Design* 6005, p.177.

17) Voelcker, 윗글 177-78 쪽.

18) Voelcker, 윗글 178쪽

19) Voelcker, 윗글 178쪽

20) *Team 10 Primer*, p.45. 원래 1953년 Aix-en-Provence에서의 CIAM 9, Commission 6 에서 Smithson부부와 Howells의 글.

21) Voelcker, 앞글 178 쪽.

는 예술로 본다. 개방미학에서는 건축가는 어느 면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CIAM 선배들의 작업이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전체 세상에 심는 것이 목표였다면, Team 10은 추상적 원리에 반대하고 각 장소가 갖는 특성을 찾아서 인간의 개성을 찾기를 원한다. 실제, 아프리카 북구등의 토속건축 연구가 상당수 표현되고 북극, 사막지역 기후에 맞는 건축 제안도 나타난다. 또한 선배들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격자형 도로 패턴의 도시를 제안한 데 반해<sup>22)</sup> Team 10은 유기적 성장하는 형태의 클러스터를 갖는 형태의 제안이 자주 등장한다. 4기능층 교통문제도 흐름의 원활을 위해 막연히 길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원자 Kahn의 제안처럼, 흐름, 정박(주차)사이에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길을 두게 된다.<sup>23)</sup>

요약하면, Team 10이 CIAM으로부터 갈라지게 되는 중심 쟁점은 선배들의 추상적이고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이념에 반대하여, 조형 형태만이 아닌 '숨쉬며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 3-2. 反問: CIAM에서는 人間이 배제되었는가?

생각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CIAM이 결성되던 1920년대 말은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건축이 따라가지 못함을 보고 뜻있는 건축가들이 미래방향을 제안한다. 그중 산업화되기 전의 무질서 속에 열악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주과제였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과거 무질서를 배격하여 기능을 명쾌히 분리하여 구성하자는 의견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 효율이란 면에 치우치기는 했지만 비난받는 Athens 현장조차 인간을 위한 도시를 제안한다. 71조, "오늘날 대부분 도시들의 과밀 혼란한 모습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물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75조, "정신적 물질적 면에서 도시는 개

인의 자유와 집합활동의 유리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76조, "도시계획의 모든 칫수는 전적으로 인체비례로 정해져야 한다." 24)

당시는 인간을 개별적 체험의 존재로 여기기 보다는 새로운 상황, 경제적 생산체계 속에서 새로이 살아가야 할 전체적, 추상적 인간으로 보았다. 최대효율, 경제적 절약, 노동력 절약 등이 우선 과제였다.

CIAM 전반부를 대표하는 Jose Luis Sert의 *Can Our Cities Survive?*를 보면 책전체를 주거, 휴양, 업무, 교통의 4가지 기능 항목으로 나누어 기존의 도시가 갖고 있는 병폐를 지적하며 유럽, 미국의 실제 도시들을 분석하면서, 도시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능적인 도시를 계획할 것을 주장한다. 오늘날 건축가, 특히 한국 건축가들이 거의 관심 갖지 않는 주거, 특히 집합주거 문제가 그들에겐 건축가의 사회적 사명감으로 떠올랐고, 당시 2회 의회의 주제였던 '최소주거'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도시과밀 불량주거의 개선이 그들의 과업이었다. 거기서도 개별의 삶의 충실보다는, 보다 나은 인간의 생물적 삶을 위하여 햇볕, 공기, 밀도, 녹지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지않는 불량주거지 (슬럼)는 "재개발될 수 없고 파괴되어야 한다"라고하는<sup>25)</sup>, 논리에 우선하여 그속에서 사는 개인의 총체적 삶을 무시한 '유물론적', '형태결정론적' 이데올로기가 건축가들로 부터 나오게 된다.

그후 선, 후진국을 망라하여 우리나라도 '불량지구 개선'이라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린 6,70년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유효한 '철거 재개발 논리'가 된다. 그런 점에서 CIAM에서 인간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추상적 인간'을 설정하다 보니 오히려 비인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Gropius는 Bridgwater 의회 직전에 Giedion에 보낸 편지에서 CIAM을 돌아보며 몇 가지 실수 중에 "인간의 요소가

22) Le Corbusier의 *City of Tomorrow*의 300만 신도시 계획에 그 논리가 잘 나타나 있다.

23) Alison Smithson, *Team 10 Primer*, p.53. p.60

24) Ulich Conrads, 앞글 pp. 137-38의 "1933 CIAM: Charter of Athens"

25) Jose Luis Sert, *Can Our Cities Survive?* 1942 p.14.

그 시기에 없었음”을 솔직히 토로한다. 26)

1950년 젊은 목소리를 인식하여 구체제인 CIAM에서도 부지런히 ‘인간’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고자 한다. CIAM 6의 개막 연설에서 Ester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27)

CIAM은 건축가의 사회적 사명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 오늘날 “사회적” 건축과 도시계획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룬다.

“CIAM 6 보고서”에서 Mark Thomas는 CIAM이 초기에는 건물 기술과 진실한 표현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후에는 계획에 사회적 개념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 선구자였다고 평가하며 CIAM은 인간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과업을 수행하였고 갈망하던 인간정신을 자극하고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물적환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다고 쓰고 있다.28)

위에서 보듯 CIAM은 결코 인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려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계획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인간’ 자체의 정의가 조금 다르고 ‘인간을 위하는 방법’이 후배들과는 약간 달랐을 뿐, 그 시대의 상황에서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 3-3. Team 10에 대한 評價

구세대는 반란을 축소 평가하려 한다. 이념이나 방법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치기로 치부하고자 한다. 반면 신세대는 이념의 다름을 부지런히 부각시키고자 한다.29) 특히 구세대는 Team 10의 행동의 결과(즉 설계된 작품)가 선

배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들어 젊은 반란쯤으로 평가절하한다. 일례로 1959년 Otterlo의 Team 10 집회시, Bakema와 Van den Broek가 계획한 Kennemerland 설계안을 발표했을 때, 구세대인 Kenjo Danke는 작품 내용이 Corbusier의 마르세유 아파트와 흡사함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30)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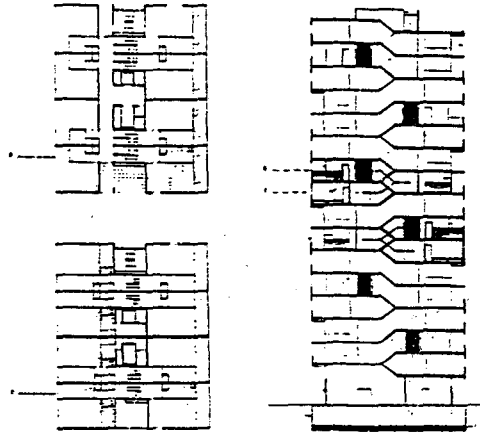


그림1. Kennemerland 계획안 평면 및 단면



그림2. Bakema의 유사개념의 고층아파트, Berlin

나는 이 계획안을 아주 좋아하고 잘 감상했다. 그런데 나에게 이것은 Corbusier의 이론과 방법을 적용한 것뿐이라고 보인다. 당시 그룹들이 구 CIAM과는 완전히 다른 신 CIAM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26) Jos Bosman, "CIAM after the War: a Balance of the Modern Movement", *Rassegna* 52, 9212. p.8.

27) Giedion, 앞글 p.16

28) Mark Thomas 앞글

29) Alison Smithson은 그때까지의 회원들의 다양한 주장과 작품 도면을 편집하여 *Team 10 Primer*라는 책으로 펴내는데, 일관된 논리와 생각을 담은 책이라기 보다 다양하고 단편적인 주장을 모자이크 식으로 편집한 책임을 알수 있다.

30) O. Newman, 앞글 p.147

30년전 Corbusier작품과 어떻게 다르냐? 단지 世代나 성격차이인지, 아니면 당신 작품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있느냐?

이에 대해 젊은 그룹 대표 주자인 설계자 Bakema는 Corbusier의 방법을 적용했음을 시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참가하여 조화롭고 능동적인 삶을 창조하는 것이 추구하는 바"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말의 답변에 그쳤다.

또다른 젊은 기수 Smithson이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 Golden Lane 집합주거 계획안을 보기로 하자.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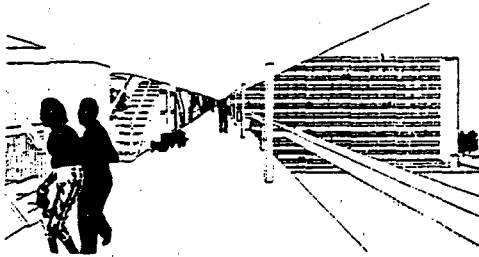


그림3. Smithson 부부의 Golden Lane 주거 공중가로

Smithson부부는 아테네 현장의 4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의 '인간교제' 즉, 집-길-구역-도시의 교체를, 실제 모델로서 Golden Lane Deck 주거를 제안한다. 그는 과거 역사적 형태인 주거 군, 가로, 광장, 녹지 등의 형태의 사회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고밀 주거에서 재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명한 '공중가로'(street-in-the-air)를 제안했다. 고층에서도 땅에서처럼 길로 연결하여 길을 사회적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그리하여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설계안을 제안하였다.<sup>31)</sup>

Team 10은 사회적 구조를 거울처럼 반영하여 물적형태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이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Brolin의 비평을 보자. Smithson의 Golden Lane 계획안과 거의 같은 개념의 주거가 영국 Sheffield의 Park Hill에 실제 지어졌다.(그림4,5) 3층-13층 높이로 매 3층마다 넓은 복도(3.6m 너비로 건물군을 쪽 연결하는 가로)를 두었다. 얼핏 이것은 길을 바탕으로한 전통 생활 방식과 새로운 건축형태가 이상적으로 결합한 것 같았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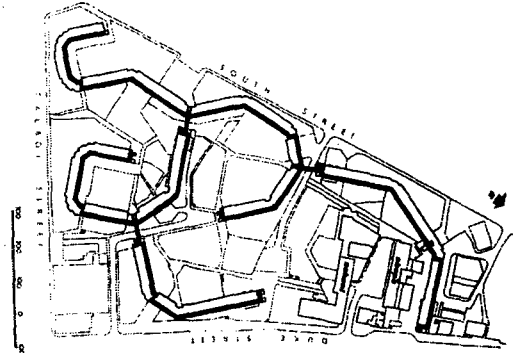


그림4. Park Hill 주거 배치



그림5. Park Hill 전경

그러나 입주 6년 후 한 사회 사업가의 조사에 의하면, 1/3의 주민이 공중가로를 비 안맞고 걸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고, 11%가 건물들을 오르내리지 않고 걸을 수 있어 좋다고 했고 그토록 의도하였던 사회적 만남의 장소로서는 단지 4%만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장소로 기억

31) Smithon, *Team 10 Primer*, pp.76-78. 원래 CIAM 9, 1953. 7. 24 발표

32) Reyner Banham, "Criticism: Park Hill Housing" AR 6112, pp.403-11 및 Brent Brolin, *The Failure of Modern Architecture*, pp.70-71



하고 있었다.<sup>33)</sup> 이는 복잡한 기하 형태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복잡한 사회 접촉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Frampton은, 땅에 붙은 기존 주거의 집과 집사이에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것이, 공중 길로 만들어지면서 통로로 밖에는 쓰이지 못했다고 평한다.<sup>34)</sup>

이상의 부정적 평가는, 그들이 이념으로서 주장한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도면과 실제 작품에 대한 것이다. 결국 말만 요란했지 선배들의 기법을 답습하여 약간 변형 표현하였다거나, 그들 이념에 바탕을 둔 이론이 실제 현실에 결과적으로 들어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言行 불일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세대간의 갈등으로 축소해석되는 계기가 되며, 젊은 세대가 기득권을 가진 기성 세대를 공격하여 반사 이익을 본 것쯤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이는 30여년간을 지속되어온 CIAM의 이념 운동을 Team 10은 단지 깨기만 하고, 새로이 모임을 건설하지 않은 (실제 Team 10은 몇 년간 이름만 남아있다 없어짐)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체의 건축 역사에서 그들이 일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커다란 사명을 다하였다고 재평가 할 수 있다. 物的 形態를 전문으로 다루는 건축가의 작업을, 처음으로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 '삶+형태'를 하나의 결합체로 보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물론 그들이 낸 문제에 스스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20세기 전반부에 형성된 현대건축은, 반대 방향으로 역사의 추가 힘껏 회전하기 시작했다.

### 3-4. 그후의 영향과 파장

CIAM이 20세기 전반부 현대건축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면, Team 10의 분리 또한 하

나의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일직선상에 놓고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여파가 다른 사조와 맞물리기도 하면서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CIAM이 산업화 사회에 걸맞은 건축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화' '표준화' '합리화' '전문기술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나갔다면, Team 10은 산업화 사회에 발생하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Team 10이 높이 평가되는, 문제 제기에 더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건축적인 답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까지도 인간의 삶과 그에 맞는 형태를 찾기 위하여 수십년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답이 그렇게 순식간에 직관적으로 나올 성질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대 기계문명에 맞는 새로운 현대 인간의 몰개성, 무취미보다 또, 기계적 거대 조직 속의 인간보다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주제성을 표현하는 형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인간집단의 가정에서부터 마을, 공동체의, 도시의, 사회조직에 걸맞는 형태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그들은 형태의 전문가에 불과했지, 인간의 삶의 문제에는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았다. 그후 '형태'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계에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던 '인간'의 문제에 새로이 깊이 들어가게 된다.

Team 10 이후, 1960년대에는 건축계 내외부로부터 당시의 현대건축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대중의 호응을 넓혀 가기 시작하였다. 무슨 거대한 이론으로 무장하여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아니올시다'의 실제 체험 또는 관찰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건축 외부로부터 유명한 것으로 언론인인 Jane Jacobs<sup>35)</sup>(1961)의 *Death &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로서 현대 건축의 대규모 블록의 고

33) Nicholas Taylor, "The Failure of Housing", *Architectural Review* 6711. pp. 350-51

34)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pp.272-73.

35) Jacobs는 경제학 배경을 가지고 자유기독교가로 시작하여 신문기자로, 나중에는 건축잡지 *Architectural Forum*의 부편집장까지 하게 되고, 건축가와 결혼하게 되었다.

층주거와 큰길, 넓은 공지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옛날 도시들의 작은 규모의 주거군, 길앞상점 등이 얼마나 활기찬가 하는 것을 실제 체험을 토대로 하여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다음으로 근대건축 이론가이며 실천가인 거장 Le Corbusier의 결과물, 특히 주거와 도시들이 집중 비판을 받는다. 가장 건축계에 잘 알려진 것으로 Brent Brolin의 Chandigarh 비판이 있다.<sup>36)</sup> 그는 꼬르뷔지에가 설계하여 실제 건설된 인도 편잡주 수도 Chandigarh에 가서, 설계자의 서양문화에 바탕을 둔 설계가 평범한 인도인의 생활에 얼마나 맞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또 Phillip Boudon은 프랑스 시골의 당시 현대식 집합주거에 30년 후 다시 가서 농촌주민들에 얼마나 생소했고, 결국 설계해준 현대건축을 자기네의 시골 스타일로 개조해 사는 것을 면담과 관찰에 의해 밝힌다.<sup>37)</sup> 또한 꼬르뷔지에가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론이 주로 반영되어 만들어진 브라질리아 신수도가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그럴듯해보이지만 살기에는 답답한 도시임이 보여진다.<sup>38)</sup> 역시 꼬르뷔지에에는 거장이며 거대한 이론가이다. 한번 짝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수십번 수십년 이상 짝어야 할만큼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70년대에 박대통령의 정치조작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신수도 기획단'이 조직되어 엘리트 건축가들이 거국적으로 참여한 도상연습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그후의 신도시로 이어진다.

건축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다룰 이론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일반학문 분야를 휩쓸고 있던 '행태주의'(Behaviorism)의 큰 줄기와 만나게 된다. 그 시작은 전통적으로 건축가의 후견인이던 '건축주(client)'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숨은 건축주, 즉 보통사람 '사용자(user)'란 용어를 탄생시켰다.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의, 관찰, 면담, 설문조사, 분석, 통계처리 등이 건축학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건축가의 설계사령탑인 '신념'이 의심 받으면서 '객관적 지식'이 요구되고,<sup>39)</sup> 설계 과정이 대가의 머리 속 '암흑상자'로부터 밖으로 투명히 '유리상자'로 들어 날 것이 요구되면서 '설계방법론'이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sup>40)</sup> 그 후 행태적 방법과 설계방법론이 합쳐져서 '거주후 평가'라는 분야가 나타나고 서구의 대부분 대학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행태' 분야로 굳어지게 된다.

한편, 고대부터 건축가의 전문 영역이었던 도시 분야는 건축가의 손을 떠나서, 심리학자, 경제학자, 행정학자, 교통 전문가 등 사회과학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도시계획학과들이 70년대에 번창하게 된다.

다음으로 건축계 내부에서 인간의 삶과 형태를 결합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나타나 건축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K. Lynch의 '도시 이미지', C. Alexander의 '패턴 언어', C. Noberg-Schulz의 '현상학적 장소이론'들로서 각각 건축학의 큰 줄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미 Team 10의 주장 도처에 그 생명 씨앗이 보인다.<sup>41)</sup>

다른 한편으로 건축을 순수 건축 울타리 안에서 해결코자 하는 역사에서의 반동 그룹이 생기게 된다. 근대건축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순수형태 대신 Team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좀더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시도가 나타난다. Lowe의 '맥락주의', Rossi의 '유형학',

36) Brent Brolin, "Chandigarh was Planned by Experts, but Something Has Gone Wrong". Smithsonian 7206

37) Philippe Boudon, *Lived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9

38) Norma Evenson, *Two Brazilian Capitals*, Yale Univ. Press, 1973

39) Barclay Jones, "Design from Knowledge, Not Belief" *AIA Journal* 6212 및 Alan Lipman, "Architectural Belief System and Social Behavior"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906

40) Christopher Jones, *Design Methods*, 1970

41) 건축학계에서 행태 방법, 설계 방법론, 인간의 삶과 형태를 결합하고자하는 움직임과 Team 10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수도 있다. Team 10은 당시 건축 설계계를 이끌어가는 집단이었고 당시 건축잡지들은 그들의 주장과 작품으로 채워졌으므로 영향여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Venturi의 ‘복합과 모순’ 같은 부류이고 그후 Charles Jencks가 ‘Post-Modern’ 이라 이름 붙이게 된다.<sup>42)</sup>

포스트 모던이라는 하나의 대안은, Team 10 이 선배들에 반기를 든, 좀더 인간에게 맞는 건축을 만들자는 주장에서 출발점을 같이 할지는 모르나, ‘형태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Team 10의 실패에서 몇 발짝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점차 출발시 의도와는 관계없이 건축이 하나의 예술 오브제처럼 또다시 인간 소외의 길을 반복하여 걷게 된다.

행태주의 사회과학의 길을 걷게 된 하나의 길은 80년대가 되면서 건축학교에서 다시 강한 비판을 받게 된다. --도대체 사회과학자들이 숫자와 말로 해놓은게 무언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라는 말이나? 파괴 비판에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설계와 같이 창조, 건설해야 하는 작업에 효용성이 의심받아 옛날로 돌아가는 시도가 유행으로 번져나갔다. “형태는 형태로 풀어야지.” 하는 반동 복고적 자세는 Team 10 이 이미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되고 만다. 선배 건축가들의 진지한 고민을 뒤로한 채 포스트 모던에서 해체 까지 유행으로 시대를 현혹하게 된다.

#### 4. 綜合: 오늘의 韓國 建築界에서의 의의

70년전 시작된 CIAM의 사명감도 40년전의 Team 10의 문제제기도 한국에는 없다. Team 10은 지구 저편에서 일어난 우리와 무관한 사건으로 한국 건축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sup>43)</sup> 일제 강점과 해방과 전쟁의 시기, 황무지에서의 개척 과정에서 그 시기는 지나갔다. 그후

경제 성장과정단계에서 서양 형태를 잡지를 통해 홍수같이 도입하면서도 정작 그쪽 속 고민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물주에게만 봉사하는 영업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사회로부터 대우받기를 바랄수 있겠는가?<sup>44)</sup> 주류로 활약하는 독학 자수성가 세대 (설계교육도 이론 교육도 공식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에게는 인간의 삶의 문제는 건축의 문제와는 별반 상관 없었고, 오로지 조형 언어와 재료와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의 한국 현대건축을 이루었다. 건축은 물질 형태로만 여겨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과정은 대학 건축 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건축 비평은 형태위주의 폐쇄비평에 다름 아니다. 각종 건축잡지의 건축물 비평이나 건축대전이나 현상설계의 작품 선정이 그러하다. 사진 건축, 꺾대기의 건축이라는 건축의 ‘형태화’가 가속되고 있다. 서양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본다면, 20세기초 바우하우스의 조형+기술의 시대와 유사하다. 구 CIAM 비평가인 Giedion이 이미 60년대말 CIAM-Team 10의 역사적 과정을 서술한 후 현대건축을 반성하면서 “건축가는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사업가적인 좁은 전문가 영역에서 이미 탈출하여 ‘어떤 종류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로 확장하게 되었다”고<sup>45)</sup> 평한 것이 1998년 현재 한국 건축 현실과 대비된다.

우리가 서양의 1백년 현대건축의 역사를 딛지 않고 공짜로 21세기 세계로 나갈수는 없다. 경제발전 단계로 보아도 이제는 인간 복지가 중요시되는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말로 ‘인간을 위한 건축’을 하려면, 비록 실패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Team 10이 고민했던 ‘형태와 삶 사이’의 문제와 그후의 여러 해법의 모색과 그 파장의 진폭에서 배워야 할

42) Charles Jencks, "Post-Modern History" AD. 7801.

43) 60년대말 대학교육 받은 필자는 당시 어떤 건축가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은사 교수님으로부터, “값더니 그친구들 건축 얘기는 안하고 댐 무슨 인간이니 사회니 그런것만 떠들더군” 하는 지나가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44) 우리도 목구회, 청건협, 43그룹 등 건축 현실 개선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념을 가지고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45) Sigfried Giedion, *Space, Time & Architecture*, pp.704-05

것이다.

후기: 이 논문은 97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 학술발표 대회에서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참고문헌

1. Carr, E. H. *What is History?* New York: Vintage Books. 1961
2. Conrads, Ulrich. *Programs and Manifestos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MIT Press, 1970
3. Steinmann, Martin. "Political Standpoints in CIAM 1928-1933". *Architectural Association Quarterly*. 1972. Autumn. vol.4.no.4.
4. Newman, Oscar. *New Frontiers in Architecture, CIAM '59 in Otterlo*. New York: Universe Book, 1961.
5. Mark Thomas, "Report of CIAM 6, Bridgwater 1947", in Giedion, *A Decade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New York: George Wittenborn, 1954.
6. Giedion, Sigfried. *A Decade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New York: George Wittenborn, 1954.
7. \_\_\_\_\_.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8. A & P Smithson, & Theo Crosby "CIAM 10 Project", *Architectural Design* 5509.
9. A & P Smithson. *Team 10 Primer*, MIT Press, 1968
10. John Voelcker, "What Happened to CIAM?" *Architectural Design* 6005, p.177.
11. Le Corbusier, *City of Tomorrow..* MIT Press, 1971. (1929)
12. Sert, Jose Luis, *Can Our Cities Survive?* Harvard Univ. Press, 1942
13. Jos Bosman, "CIAM after the War: a Balance of the Modern Movement", *Rassegna* 52, 9212.
14. Brolin, Brent. *The Failure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Studio Vista, 1976
15. Nicholas Taylor, "The Failure of Housing" *Architectural Review* 6711.
16.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0
17. Banham, Reyner. "Critism: Park Hill Housing, Sheffield" *Architectural Review* 6112.

# The Historical Lesson of the Team 10's Break Away from the CIAM

Lee, Hee-Bo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from a lesson of the historical fact, the Team 10's break away from the CIAM, which is selected a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whole 20th century architecture by author as a historian. The CIAM, organized in 1928 by leading European architects in order to propose new architecture in the industrial era, expanded to the world, met almost annually with an idea of economic efficiency, new functional order, and industrial production for thirty years. Young architects had conflicted with old established group from 6th congress, and after 10th congress they met independently in 1959; the CIAM was disappeared and the Team 10 was born.

Main issue of the break-away was human aspect. The Team 10 started from real man, concept of 'human contact', 'sense of community', and 'belonging' instead of abstract functional order. Although CIAM did not suggest inhumane architecture, their biological criteria with sunlight, air, sufficient site became physical determinism. Critique against the Team 10, unsuccess for making humane architecture leads to underestimation like a generational hegemony struggle. However, architect is not specialist of life but form. Historical reevaluation for Team 10 should be that they are the first group to raise an human issue in architecture. Success or not to solve the problem belongs to another domain.

After 1960, modern architecture was attacked from the common people, not clients but 'users'. Academic circle tried to solve the problem with behavioral approach through a clear process, 'design method' and with phenomenological approach on real human experience. However practice became reactionary tendency, to make form a little complex, they became post-modern and deconstruction form. Failure of the Team 10's form proved that a complex form does not necessarily make a good life of people.

In the Korean historic situation of colony ruling, confusion of liberation, and the War, we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both CIAM and Team 10. After 1970s' economic development, we have just copied Western form from Modern via Post-Modern to Deconstruction. If we make architecture people mattered, we should start from the basic, learning from the Team's break-away, instead of copying.